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
제37권 26호(가해) 2017년 5월 21일

[목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실제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은 말이나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실전 없는 말뿐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시로 말을 씻겨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정상수,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낮 미사	(연)박종무 바르톨로메오,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두철 아브라함,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김정숙 김정례 수산나, 김학래 마지아 & 이어연 막달레나, 변진섭 다두, 임사순 보나, 이덕철 루카 (생)손석 스테파노, 김진엽 마지아, 조준제 요셉 & 조정석 수산나, 정애나 세라피나 & 에릭가정, 정동호 하상 바오로가정, 지상은 세레자요한 & 김보래 소피아, 박소연 아네스, 홍석인 체칠리아, 최태훈 아오스딩,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박상대마르코사제, 오창근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8,5-8.14-17

화답송 ㉠은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은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은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
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
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 2독서 베드로1서(1 Peter) 3,15-18<또는 4,13-16>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John) 14,15-21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삼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물, 흙, 공기, 생명을 오
염 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15) “자연 세계에 저
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16)
이기 때문입니다.

9. 또한 바르톨로메오 총 대주교님께서는 환경문제의 윤
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 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
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됩니다. 총대주교님께서는 우리가 소비대신회생
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
의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방법, 점
차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
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
동에서 해방 되는 것입니다.”1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
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친교의 성사로 받아들이도록” 부
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
느님창조의 흠 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
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18) < 계속>

15.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바바라 시에서
한 연설, 1997.11.8.; 참조: 크리스토퍼시스(JohnChrysavgis),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의 생태적 시각과 계
획」(OnEarthas inHeaven:EcologicalVision and Initiatives ofE-
cumenicalPatriarchBartholomew), 뉴욕 브루크스, 2012.

16.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바바라 시에서
한 연설, 1997.11.8.

17.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노르웨이 우트슈타인수도원에서 한강
의, 2003.6.23.

18.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이스탄불 할키 제1차 정상 회담 폐막 인사,
‘세계적 책임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
(GlobalResponsibilityandEcologicalSustainability), 2012.6.20.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63	163	165
봉헌	270	270	268
성체	106	106	282
파견	324	324	33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직은 미혹하기 그지없는 당신 제자들을 애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 14,15)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 계명에 집착하는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라 꾸짖으시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 같다며(마태 23,13-35 참조) 힐난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당신 제자들에게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시다니. 이것이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즘엔 ‘내로남불’이라고 간편하게 칭하기도 하더군요)의 예수님 버전인가요.

사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린 채 자구에만 세세하게 집착하면서, 율법을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지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요한 7,19)고 말씀하시며, 당신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성하는, 그리고 그 근본정신을 환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줄 뿐 그 자체로는 구원의 힘이 없었던 율법은(로마 7,7 참조) 이제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복음의 바로 앞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또한 서로를 사랑할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무릎을 꿇고 이웃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랑이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며, 힘 있는 이들이 힘없는 이들을 불의하게 내려 누를 때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용감히 맞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스러지지 않을 것이니(1코린 13,8 참조),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토록 가깝게

사방 막막하여
여기가 지옥 한가운데구나 절망스럽지만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분명 있겠지,
그런 희망으로 견뎌 냅니다.
더는 바랄 것 없어 지금이 천국이다 싶다가도
천국이 여기라면 지옥 역시 멀리 있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마음을 단속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현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러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이만석 미카엘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조병준 플러렌시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제14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21일(오늘 주일) 11:00am~5:00pm

- 미사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 / 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 피구, 엉덩이 뒤에 풍선 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짝짓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 경품 : 상품권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97-7770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여섯번 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 격: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 8월6일 2017년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 2017~18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위원을 위촉합니다.

장학생 선발을 심사하여 주실 장학위원입니다.
김마누엘라 수녀, 최기남 야고보, 이재정 사도요한,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황선준 플로렌시오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ecks@gmail.com

◆ 21일(오늘 주일)은 본당 체육대회, 28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두 주간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21일: 본당 체육 대회
- 5월 28일: Memorial Day 연휴: 친교자리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권태만 김봉녀 김원호 김일선 김재희	강미순 권태만 김재희 김찬구 남명자 박광자
김정아 김찬구 김형순 남명자 박광자 박미경	박정자 성낙호 신용섭 안재만 안태갑 유선식
박정자 성낙호 송재훈 신용섭 안재만 안태갑	윤희동 이귀란 이민상 이일길 정규숙 정동호
위진록 유선식 윤희동 이귀란 이민상 이일길	조화숙 최미열 최원석 홍광선 한길선례
이종필 정규숙 정동호 조화숙 최미열 최원석	
홍광선 홍인표 황철수 박이레네 한길선례	
주일미사헌금 : \$2,366	합계 : \$2,010
	성물판매 이익금 : \$583.35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곽효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Clare Chung (chiaralite@gmail.com)

◆토마스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GLORIA"

- 성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성 토마스 성당 성가대,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기쁜 행사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6월 4일 (일요일),시간 : 오후 5시
 - 장소 : 성당
 - 티켓 : \$10 도네이션
 - 고상옥 대건 안드레아 ☎(714)772-3995 ext.105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5월 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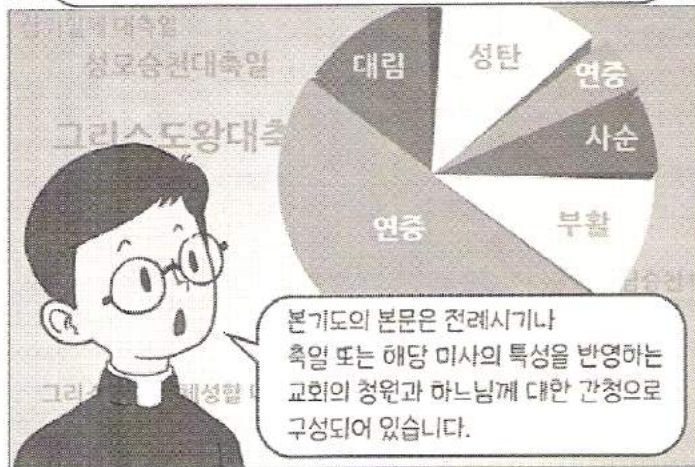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방사, 축복, 축성의 차이는?

신부님! 이 목주를 ‘방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는 ‘축성해 주세요’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인가요? 정답은 ‘축복해 주세요’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상이나 목주, 패와 메달 등을 축복할 때에 방사(放辭)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성물에 축복하는 말씀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祝福)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축복이란 베네딕시오(benedic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좋은’(bene)과 ‘말’(dictio)의 합성어로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말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 원하는 사람, 교우들의 다양한 세속 활동을 위한 건물, 즉 새집, 사무실, 공장, 가게, 학교, 병원 등과 자동차나 전철에 사용되는 감시, 십자가, 공적으로 전시할 성화상 등에 축복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신심 생활을 돕는 목주, 스카폴라, 성모상, 성인상 등에 행합니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창세 39,5)

반면에 축성(祝聖)은 콘세크라시오(consecra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con)와 ‘거룩함’(sacratio)이 결합되어 ‘거룩함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 거행에서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감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을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그리고 처음 성당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할 때 교구장은 제대를 기름과 기도로 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성직자에 오르는 서품이 바로 축성식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성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축성을 통하여 영원히 하느님에게 속하도록, 오직 하느님을 위해 쓰이도록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Quiz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콘	클		베			성		이
						복			스
	모			딕			스		라
콘		크	라					인	엘
				오		방			

「성경 속 동식물」 20 가족과도 같은 소

성경에서 저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소를 다양하게 이용한다. 부의 상징(창세 13,2), 농사를 지을 때(1사무11,5; 6,7), 제사에 제물(레위 1,2), 계약을 맺는 의식에서도 사용했다.

(예레 34,18) 모세 율법에는 소 사육을 규정한다.(탈출 29,10)

소는 값비싼 가축이었기에 잔치의 과도한 사치의 증거로 비유하기도 한다.(아모 6,4; 루카 15,23)

소는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로 함께 살아왔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포)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 오 겐마 -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미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